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수용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김우진** · 정지아*** · 심태은**** · 이승이*****

초 록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능력과 이중문화 수용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된 다문화 청소년 패널(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 이중문화 수용성 및 자아 탄력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언어능력과 이중문화 수용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언어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이중문화 수용성은 일관된 변화 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어능력의 경우, 년도별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초기값이 높았던 청소년은 언어능력이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 언어능력의 초기값이 낮았던 청소년은 언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 수용성의 경우 일관된 변화 없이 증가와 감소를 보여준 것을 통하여 연령과 발달의 차이보다는 환경의 차이가 이중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언어 능력과 이중 문화 수용성이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는 언어능력과 이중문화 수용성 모두가 자아 탄력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 및 언어능력과 이중문화 수용성의 변화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개발에 이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언어능력, 이중문화수용, 자아탄력성, 잠재성장모형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에서 주최하는 2017년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 텍사스 주립대(UTRGV) 박사 후 과정, 제1저자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신저자, jeaah.jung@gmail.com

**** 동국대학교 역량개발센터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는 다문화 사회로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2050년에는 영아 3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가정 자녀로 예상되어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본다(김승권 외, 2010). 다문화 가정은 1990년 중반 이후에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윤아름, 2013),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아직 성인으로서 성장하지 않았고,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발달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아동에 집중된 사회적 관심이 청소년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사회는 다문화청소년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다문화청소년을 사회의 문제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이들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강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을 문제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찾아 다문화청소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강점 중 자아탄력성은 새로운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은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으로(노은숙, 2010), 인간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성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능력이나 특성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보통의 적응기제이기(Masten, 2001) 때문에, 각 발달단계에 따라 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 부모와 사회의 심리적 지지에 대한 연구(구자은, 2000; 정지영, 임정하, 2011; 임양미, 2013)로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의미를 가진다. 김지혜(2012)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봉사에 대한 만족도는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허원석(2013)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이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이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모와 사회의 심리적 지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기 쉽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향상해야 할 중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 수용성에 중점을 두었다.

언어능력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으로, 이채식(2012)에 의하면 중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은 대학생활 적응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우영경과 김은하(2016)의 연구결과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이중 언어 사용능력과 적응유연성이 서로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어, 언어능력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과 관련하여 기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은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경, 양계민, 2012). 이렇게 언어능력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은 발달의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해 나아가면서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성장해 나아가는 동안 향상된 언어능력이 자아탄력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시기변화에 따른 언어능력의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언어능력과 함께 이중문화 수용성도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박애선(2017)에 의하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 또한 자아탄력성과 상당히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만식(2014)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중문화수용성을 비교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중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 하여, 연령에 따라 이중문화수용성이 변화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지영과 김재철(2015)에 의하면 이중문화수용성이 학교 간 분산에 비해 학교 내 분산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특성이 이중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높은 이중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인적인 특성이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다른 연령대의 이중문화수용성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같은 대상의 발달에 따른 이중문화수용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한다. 즉, 시기가 변함에 따라 이중문화수용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는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언어능력과 이중문화 수용성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청소년만이 지니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이 시기의 변화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또 다른 강점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되어 국내의 청소년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 이중문화 수용성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시기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 수용성이 시기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주요 변인 측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제 1-5차 조사 데이터 코드북을 활용하였다.

1) 종속 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으로서, 이는 외적, 내적 스트레스원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려는 능력을 의미한다(이미영, 2017). 구체적인 측정 문항을 살펴보면 ① 내 친구에게 너그러움, ②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냄, ③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함, ④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임, 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김, ⑥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임, ⑦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을 좋아함, ⑧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음, ⑨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함, ⑩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함, ⑪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함, ⑫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음, ⑬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짐, ⑭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음 등 총 14문항으로 측정 되었다. 응답 범주는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자아탄력성은 시간 의존적(time dependent)변수로서 측정문항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의 측정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연도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신뢰도 값 기준은 .7 이상일 경우 내적 일치도를 만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홍두승, 설동훈, 2012). 첫째, 2012년 자아탄력성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 .906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홍두승, 설동훈, 2012). 둘째, 2013년 자아탄력성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 .902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셋째, 2014년 자아탄력성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 .913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넷째, 2015년 자아탄력성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 .909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2) 독립 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은 시간 의존적(time dependent)변수로서 측정문항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의 측정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 측정변인은 ① 한국어 말하기 능력, ② 한국어 쓰기 능력, ③ 한국어 읽기 능력, ④ 한국어 듣기 능력 등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4점 척도(1점=전혀 못한다, 2점=못하는 편이다, 3점=잘하는 편이다, 4점=매우 잘한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각 연도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신뢰도 값 기준은 .7 이상일 경우 내적 일치도를 만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홍두승, 설동훈, 2012). 첫째, 2012년 언어능력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 .937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둘째, 2013년 언어능력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 .949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셋째, 2014년 언어능력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 .941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넷째, 2015년 언어능력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 .958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의 측정변인은 ① 한국문화를 즐기는 편임, ②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즐기는 편임, ③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움, ④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움, ⑤ 앞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음, ⑥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음, ⑦ 외국인 부모님 나라로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음, ⑧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함, ⑨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함 등 총 9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 수용성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각 연도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신뢰도 값 기준은 .7 이상일 경우 내적 일치도를 만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홍두승, 설동훈, 2012). 첫째, 2012년 이중문화 수용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 .730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둘째, 2013년 이중문화 수용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 .731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셋째, 2014년 이중문화 수용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 .731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넷째, 2015년 이중문화 수용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 .742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2. 분석모형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초기변화 상태(initial status)와 변화수준(rate of change)을 이용하여, 마지막 수준까지의 변화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또한 잠재성장 모형은 비 조건적 모형(unconditional model)과 조건적 모형(conditional model)으로 구분되는데 비 조건적 모형은 자아탄력성,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의 변화를 1년 단위로 4번 측정한 뒤, 무 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 2차 함수 모형을 설정한다. 그 다음 가장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개인 간 모형과 개인 내 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내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가능하다. 우선 무변화 모형은 다음과 같다.

$$1\text{수준: } Y_{it} = \pi_{0i} + e_{it}$$

$$2\text{수준: } \pi_{0i} = \beta_{00} + r_{0i}$$

이는 자아탄력성,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이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함없이 그대로 임을 가정한다.

다음으로 선형변화 모형은 다음과 같다.

$$1\text{수준: } Y_{it} = \pi_{0i} + \pi_{1i} \text{Time}_{it} + e_{it}$$

$$2\text{수준: } \pi_{0i} = \beta_{00} + r_{0i}$$

$$\pi_{1i} = \beta_{10} + r_{1i}$$

여기서 y 는 시간 t 에서 개인 i 의 y 변수의 점수, π_{0i} 는 개인 i 의 초기상태, π_{1i} 는 개인 i 의 변화율, t 는 측정시간의 코드화 값, e_{it} 부분은 오차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모형을 1수준 모형이라고 하며, 다음 개인 간 모형 즉 2수준 모형에서 β_{00} 와 시간 β_{10} 는 각각 초기상태와 변화율의 집단 평균을 의미하며, r_{0i} 는 개인 i 가 집단으로부터

터 벗어난 정도, 그리고 γ_{1i} 는 개인 i 가 변화율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한다.

2차 함수 모형은 다음과 같다.

$$1\text{수준: } Y_{ti} = \pi_{0i} + \pi_{1i}\text{Time}_{ti} + \pi_{2i}\text{Time}_{ti}^2 + e_{ti}$$

$$2\text{수준: } \pi_{0i} = \beta_{00} + \gamma_{0i}$$

$$\pi_{1i} = \beta_{10} + \gamma_{1i}$$

$$\pi_{2i} = \beta_{20} + \gamma_{2i}$$

여기서 β_{20} 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2차 함수 모양으로 변화 속도가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추정방식은 FIML을 활용하였다.

III. 이론적 배경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상황적 사건, 혹은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긴장과 인내의 수준을 상황에 따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라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 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Kremen, 1996). 이는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 행동을 이해하는 주요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좋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으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융통적인 적응능력’으로 정의된다(고은정, 1996).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응집력이 강하고, 삶의 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Murphy & Moriarty, 1976). 또한 그러한 아동들은 낙관적이고 생산적이며 자율적인 활동력을 보여 주고 자기 표현력이 높다(Klohn, 1976).

1996). 학업에 대한 지적 성취도가 높은 지적으로 우수한 아이들 중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은 인지적 능력을 더욱 잘 활용하고(고민숙, 2002), 학교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 할 뿐 아니라 스포츠, 드라마, 음악 등에서도 뛰어나고 또한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잘 활용한다(Wallerstein & Kelly, 1980).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중 아버지의 개방형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혜성, 2012). 이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언어능력

이중 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이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다. 그러나 이때 두 개의 언어에 대한 능력 정도에 대한 범위 문제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최상론자들(maximalist)은 두 개의 언어에 모두 동등하게 숙달해야만 이중 언어로 보는가 하면 최소론자(minimalist)들은 한 개의 모국어와 제2 언어에 대한 최소한의 능력만 있으면 이중 언어로 본다.

다문화가정 내에서 이중 언어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부모 모두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홍종명, 2012). 다문화가정 내에서 이중 언어의 습득은 단지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그 민족의 관심을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타민족과의 상호교류 확대 및 적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노충래, 홍진주, 2006). 이는 해외 연구 사례에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언어 능력에 따라 학교 생활 학습 내용 적응도나 동급생들과 친구 관계를 맺는 수준이 다르고 나아가 문화 적응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Vedder & O'Dowd, 1999). 특히 유럽의 이민자들로 다수 구성된 스위스의 경우를 연구한 von Grunigen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의 새로운 국가의 언어 구사 능력에 따라 학습 능력, 외로움, 왕따의 표적이 되지 않고 동화될 수 있는 사회 활동 정도에 영향을 주는 기본 능력이라고 한다.

안은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출신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출신국가 언어에 대해

교육을 받은 다문화가정 자녀는 교육을 받지 않은 자녀에 비해 학교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이중 언어 노출정도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규, 2012).

이중 언어사용은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가족 내에서 이중 언어사용에 대해 격력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여러 심리사회적인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인 배경, 즉 자신의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출신이며, 자신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고, 여러 위기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외국출신부모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청아, 2014).

이중 언어사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단순히 이중 언어를 잘하는 것보다 모국어 유창성 모두가 높은 아동이 적응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다(곽금주, 2008). 결혼 이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식, 박명희, 2012)에서도 청소년이 이중 언어를 잘하는 것보다 이중 언어와 함께 모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청소년이 사회적응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는 모국어가 이주민에게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고, 국제결혼 이주민에게는 가족 응집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 언어의 사용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순희, 2009).

3. 이중문화 수용성

이중문화 수용성(bicultural acceptance)은 다문화 사회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으로 완벽한 주류 사회로의 동화를 설명하는 멜팅팟(melting pot) 모델이나 이 이론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등장하게 된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서로 대립과 경쟁, 갈등한다는 갈등 이론적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개념이다. Valentine은 개인이 한 사회의 단일한 주류 문화에 의해 사회화하고 성장하는 방식이 아닌 소수 집단의 규범과 문화를 내면화 하고 나아가 주류 문화에 의해 사회화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문화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의 성장을 설명한다(de Anda, 1985).

이러한 이중 문화 수용에 대한 설명에는 6가지 기본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이 있다.

첫째는 두 가지 문화가 어느 정도 공유하는 규범, 의식 구조 등이 있을 것, 두 번째, 문화적 중재자가 있을 것, 세 번째, 행위에 대한 양측 문화의 반응, 네 번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소수 문화와 주류 문화의 연결점이 있을 것, 다섯 번째, 개인의 이중 언어 습득 수준, 마지막으로, 주류 문화 구성원과 외형적으로 얼마만큼 유사한가이다 (de Anda, 1985; Valentine, 1971). 이는 개인이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거리가 가깝거나 유사한 두 가지 문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이중 문화를 습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수용성은 일차적으로는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수 집단의 이질성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학습해야할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는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이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와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 결혼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무시, 빠른 한국 사회로의 동화 요구,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무시와 따돌림 등이 있다(장임숙, 이원일 2011; 박주희, 정진경, 2008). 심리학적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연구로는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해 주류 사회에서 오는 차별, 편견 때문에 사회 적응이 힘들어진 집단들의 정체성 혼란과 스트레스, 사회적인 소외감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부적응자 양상과 사회적 갈등의 유발자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강혜정, 임은미, 2012).

이러한 우리나라의 많은 다문화 연구 경향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소수 집단 구성원 자체보다는 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사회의 주류 집단들이 소수자인 그들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로써 발생한 사회 문제와 같은 결과물들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과거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도 많은 문헌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는 정도인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한 연구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의 2세 청소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하는 사회 공간을 같이 쓰는 일반 청소년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 또한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아닌 일반 가정 자녀들의 다문화 수용성 연구로는 김미진 (2010), 박혜숙(2013), 이은정(2012)이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을 하였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인구 사회학적 요소와 사회 문화적 요인들(백승대, 안태준, 2013;

이지영, 2013), 다문화 피교육에 대한 경험(이강모, 2014; 정명희, 박외병, 2014; 정석원, 2014), 다문화 접촉에 대한 경험(금혜령, 2013; 최희선, 2014), 부모의 양육 태도(설은정, 정옥분, 2012) 등 환경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 문화적 요인과의 관계를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고 개인이, 그것도 다문화 가족의 주체인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는 이중문화 정체감과 사회 문화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문은 미진한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아직 덜 탐구된 영역인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주류 문화의 가치를 습득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다문화적 요소, 부모에게서 오는 정서적,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타인을 향한 감정 확립, 사회적 교류 기술을 터득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이로 인해 증진되는 문화적 수용성, 즉, 다양한 인종에 대한 다양성, 편견에 대한 이타심 및 사회성이라 할 수 있다(김길자, 2006).

조민경과 김렬(2010)에 따르면 제1세대 이주민들의 경우 자기의 고유한 원문화를 가지고 이주 사회에 새롭게 들어가 문화 충격을 받고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게 되고 적응해 살아가게 되면서 많은 사회적 스트레스와 내부 갈등을 겪게 된다고 보았다. 반면 Martinez와 Haritatos(2002)는 이중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높을수록 두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기 쉽고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력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두 가지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개인의 심리적 개방성으로 본 권재환과 이선희(2015)는 일반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이주 문화에 대한 문화적 노출과 습득 정도가 외부에서 전해지는 충격이나 갈등보다도 개인의 내적 역량, 얼마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신뢰감을 갖으며 친근하게 느끼고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문화적 개방성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 사회의 영향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수동적인 개인을 넘어 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분석 결과

1) 종속변인: 자아탄력성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인의 4개년 간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표 2와 같다. 자아탄력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유효사례 수의 경우 2012년 1490명, 2013년 1433명, 2014년 1370명, 2015년 1336명으로 집계 되었다.

표 1

종속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	2012년 1차년	2013년 2차년	2014년 3차년	2015년 4차년
평균	2,954	3,023	3,064	3,056
표준편차	.471	.451	.465	.452
최소값	1,000	1,000	1,360	1,430
최대값	4,000	1,000	4,000	4,000
유효사례수	1490	1433	1370	1336

2) 독립 변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표 2

시간 의존적 독립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청소년 언어능력	2012년 1차년	2013년 2차년	2014년 3차년	2015년 4차년
평균	3,632	3,659	3,741	3,706
표준편차	.499	.491	.439	.478
최소값	1,500	1,000	1,000	1,000
최대값	4,000	4,000	4,000	4,000
유효사례수	1490	1433	1370	1336

청소년 이중문화 수용	2012년 1차년	2013년 2차년	2014년 3차년	2015년 4차년
평균	1.453	1.457	1.403	1.446
표준편차	.377	.370	.322	.344
최소값	1.000	1.000	1.000	1.000
최대값	3.700	3.300	2.900	3.400
유효사례수	1490	1433	1370	1336

2. 주요 변인에 대한 무조건 모형 및 조건모형 추정 결과

1)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

(1)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에 관한 무변화, 선형 및 2차 함수 모형의 적합도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에 관한 변화 궤적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하여 무변화, 선형변화, 2차 함수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변화 모형과 2차 함수 모형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선형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chi^2=28.024^{***}$, $df=5$, $TLI=.937$, $CFI=.968$, $RMSEA=.053$)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언어능력 모형은 선형변화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3

언어능력 모형 선택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99.152 ^{***} (8)	.844	.875	.083
선형 변화 모형	28.024 ^{***} (5)	.937	.968	.053
2차 함수 모형	15.229 ^{***} (1)	.805	.981	.093

*** $p<.001$

선택된 모형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평균과 초기치, 변화율 분산, 공분산 추정값은 표 4와 같다.

표 4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공분산(S.E.)
초기치(S.E)	변화율(S.E)	초기치(S.E)	변화율(S.E)	
3.640***(.012)	.032***(.005)	.107***(.009)	.010***(.002)	-.017***(.004)

*** $p < .001$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 평균은 3.640***으로 추정되었으며, 변화율은 .032***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한 단위(1년) 증가하면 언어능력 역시 .032만큼 증가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 분산은 .107***, 변화율 분산은 .010***이며, 이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017***이 부적(-)으로 나타나 언어능력의 초기값이 높았던 청소년은 언어능력이 서서히 증가하며, 반대로 언어능력의 초기값이 낮았던 청소년은 언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에 관한 무변화, 선형 및 2차 함수 모형의 적합도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에 관한 변화 궤적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하여 무변화, 선형변화, 2차 함수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변화 모형과 2차 함수 모형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선형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chi^2=39.054^{***}$, $df=5$, $TLI=.854$, $CFI=.927$, $RMSEA=.065$)가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χ^2 차이 검증결과 두모형은 차이($\Delta\chi^2=11.180$, $\Delta df=3$, $p=.001$) 그리고 모형에 대한 해석 가능성과 CFI 지수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이중문화 수용성의 변화율이 -.007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p 값은 .066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05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모형은 선형변화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5

이중문화 수용성 모형선택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50.234*** (8)	.887	.910	.057
선형 변화 모형	39.054*** (5)	.854	.927	.065
2차 함수 모형	20.449*** (1)	.584	.958	.109

*** $p < .001$

선택된 모형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평균과 초기치, 변화율 분산, 공분산 추정값은 표 6과 같다.

표 6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공분산(S.E.)
초기치(S.E.)	변화율(S.E.)	초기치(S.E.)	변화율(S.E.)	
1.449*** (.009)	-.007 (.004)	.045*** (.005)	.003* (.001)	-.513*** (.002)

** $p < .01$, *** $p < .00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평균은 1.449***으로 추정되었으며, 변화율은 -.007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한 단위(1년) 증가 하면 이중문화 스트레스 역시 .011만큼 감소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분산은 .045***, 변화율 분산은 .003***이며, 이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513***이) 부적(-)으로 나타나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의 초기값이 높았던 청소년은 이중문화 수용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반대로 이중문화 수용성의 초기값이 낮았던 청소년은 이중문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1)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무변화, 선형 및 2차 함수 모형의 적합도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변화 궤적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하여 무변화, 선형변화, 2차 함수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2차 함수 형태로 변화한다는 모형의 적합도 지수($\chi^2 = .156$, $df=1$, $TLI=1.007$, $CFI=1.000$, $RMSEA=.000$)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모형은 비선형 형태인 2차 함수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7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모형선택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120.957*** (8)	.875	.900	.093
선형 변화 모형	24.537*** (5)	.965	.983	.049
2차 함수 모형	.156(1)	1.007	1.000	.000

*** $p < .001$

선택된 모형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평균과 초기치, 변화율 분산, 공분산 추정값은 표 8과 같다.

표 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S.E)	선형 변화율(S.E)	2차 함수 변화율(S.E)	초기치(S.E)	분산 선형 변화율(S.E)	2차 함수 변화율(S.E)
2.953*** (.012)	.093*** (.014)	-.020* (.004)	.079*** (.019)	-.004 (.025)	.001 (.002)
	공분산			Estimate(S.E.)	
자아탄력 초기값	↔	자아탄력 선형변화		.079*** (.046)	
자아탄력 선형변화	↔	자아탄력 2차 함수		-.004 (.025)	
자아탄력 초기값	↔	자아탄력 2차 함수		.001 (.002)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초기치 평균은 2.953***으로 추정되었으며, 변화율은 .0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한 단위(1년) 증가 하면 자아탄력성 역시 .093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차 함수 변화율은 -.020*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일정 수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초기치 분산은 .079***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치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나 선형변화율의 분산은 -.004 및 2차 함수 변화율의 분산은 .001로 나타나 개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 이중문화 수용성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 잠재성장곡선간 인과모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 이중문화 수용성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 잠재성장 곡선간 인과모델 결과 우선 모형적합도 지수($\chi^2=258.673^{***}$, $df=80$, TLI=938, CFI=964, RMSEA=.037)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잠재성장 곡선간 인과모델

경로	비 표준화 B(S.E.)	표준화 β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초기치 <-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581***	.430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율 <-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368	-1.02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2차함수 <-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218	-1.05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율 <-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변화율	-.444	-.331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초기치 <- 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	.184**	.20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율 <- 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	-.144	-.600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2차함수 <- 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	-.186	-1.352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율 <- 청소년의 언어능력 변화율	.019	.024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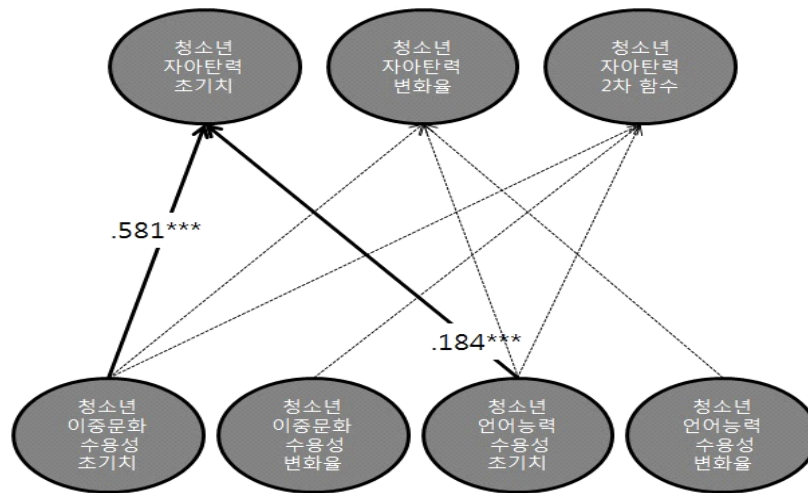


그림 1. 가설 검증 결과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는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는 청소년의 자아탄력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두 가지 문화권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아 탄력성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답을 찾고자 한 연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는데, 첫 번째는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 이중 문화 수용성 및 자아 탄력성이 어떻게 변화 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영역은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 수용성 이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언어능력의 경우, 연도별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초기값이 높았던 청소년은 언어능력이 서서히 증가하며, 반대로 언어능력의 초기값이 낮았던 청소년은 언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

의 언어 습득력이 높아 이 시기의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즉, 학업이나 교우관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언어적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도 이 시기의 적절한 언어적 자극은 언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언어능력은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청소년 각자가 경험하는 언어적 환경이나 개인의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상심과 정옥란(2008)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특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아동의 동작성·언어성 지능 및 전체 지능, 어머니의 구문의미이해력, 어휘명명하기 능력 및 어휘이해력, 아동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경험, 결혼 기간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개인의 언어지능뿐만 아니라 부모의 영향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의 언어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다문화 특성을 지닌 부모의 특성 또한 분석하여 이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효인(2012)의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언어능력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언어능력이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비교하여 읽기의 능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쓰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쓰기 능력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전반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면, 이효인(2012)의 연구에서는 언어능력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언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환경적 강점과 보완해야 할 영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문화 수용성의 경우 일관된 변화 없이 증가와 감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과 발달의 차이보다는 환경의 차이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 즉, 본인 또는 부모의 직업, 교육 수준, 정치 성향, 경제력 수준 그리고 타 민족과의 접촉 여부가 다른 문화에 선입견, 편견 없는 태도와 유연성을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Hainmueller & Hiscox, 2007) 의견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사회를 직면하고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에 관한 것으로 다른 문화들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서로 간에 대해 편견 없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인 동시에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인 능력,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결론(오경화, 2011)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문화 관련 인지적, 정서적 능력을 연구한 김영란(2013)과 황정미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다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방성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어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 감각을 키우기 위한 균형 잡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경우, 년도에 따라 일정 수준 증가하다가 소폭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단순히 발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는 변인이라기보다는 다른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특정 시기에 더 많은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능력과 이중문화 수용성 모두 자아탄력성의 초기 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김승경과 양계민(2012)의 결과에 의하면 이중 언어 요인이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청소년의 언어능력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감적 이해와 자아개방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능력에 자아탄력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허지연, 2004)는,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언어능력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자아탄력성의 향상이 언어능력과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신윤진, 윤창영, 2010)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본인과 부모의 다문화적 특성을 강점으로 인식하여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이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이 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은 언어와 이중문화 수용 능력 및 자아탄력성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혜정, 임은미 (2012). 대학생용 다문화태도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연구. **아시아 교육 연구**, 13(4), 35~57.
- 권재환, 이선희 (2015).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모형 검증. **청소년문화포럼**, 44, 8~26.
- 김경식, 박명희 (2012). 다문화교육 강화를 통한 예비교사들의 다문화 역량 변화. **다문화교육연구**, 5(1), 155~176.
- 김길자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란 (2013). 다문화 사회 한국의 사회 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 14(1), 3~30.
-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9(11), 147~176.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혜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10).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금혜령 (201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적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민숙 (2002). **자아탄력성, 의사결정 유형 및 성패귀인 유형과의 관계: 애착 유형과 생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은정 (1996).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6.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 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은숙 (2010).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통제소재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박애선 (2017).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93~106.
- 박주희, 정진경 (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4(2), 1~21.
- 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규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64(2), 159~183.
- 박혜숙 (2013). 대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척도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44(2), 219~248.
- 백승대, 안태준 (2013). 국민정체성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치학회지**, 21(2), 1~24.
- 설은정, 정옥분 (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0), 91~114.
- 신윤진, 윤창영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적응, 또래관계 및 이중문화수용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4(2), 1~14.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화 (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 수용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9), 83~97.
- 우영경, 김은하 (2016).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능력이 적응유연성 및 문화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9(3), 63~81.
- 윤아름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강모 (2014). **다문화수용성의 결정요인 연구: 다문화 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영 (2017).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관계: 한국과 뉴질랜드 청소년

- 비교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2), 439~458.
- 이은정 (2012).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척도 개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영 (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채식 (2012).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결정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21~140.
- 이효인 (2012).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연구: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2, 471~494.
- 임양미 (2013).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2), 147~167.
- 장임숙, 이원일 (2010).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연구**, 15(4), 177~199.
- 정명희, 박외병 (2014).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2), 81~105.
- 정석원 (2014).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지영, 임정하 (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1), 37~51.
- 조민경, 김렬 (2010).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263~289.
- 최만식 (2014). **교원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영, 김재철 (2015).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2(2), 389~411.
- 최희선 (2014).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혜성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원석 (2013). 중학생의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31~43.
- 허지연 (200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및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간의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청아 (2014). **동남아출신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나라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및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두승, 설동훈 (2012). **사회조사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 홍종명 (2012).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결혼이민자 모국어 사용양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6(3), 279~302.
- 황상심, 정옥란 (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아동들의 언어특성관련 상관 연구. **언어치료연구**, 17, 81~102.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nn S. Masten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de Anda, Diane (1975). Bicultural Socialization: Factors affecting the minority experience. *Social Work*, 29(2), 101~107.
- Benet-Martinez, V., & Haritatos, J. (2005). Bicultural identity integration: Components and psychological antecedents. *Journal of Personality*, 73(4), 1015~1049.
- Block J. Kremen AM (1996). IQ and Ego-res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2.
- Von Grunigen, R., Perren, S., Nagele, C. A., saker, F. D. (2010). Immigrant children's peer acceptance and victimization in kindergarten: The role of local language compete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 679~697.
- Hainmueller, J., & Hiscox, M. J. (2007).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2), 399~499.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67~1079.
- Murphy, L. B., & Moriarty, A. E. (1976). *Vulnerability, coping and growth from infancy to adolesce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Valentine, C. A. (1971). Deficit, difference, and bicultural models of Afro-American behavior. *Harvard Educational Review*, 41, 137~157.
- Vedder, P., & O'Dowd, M. (1999). Swedish primary school pupils' inter-ethnic relationship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0, 221~228.
- Wallerstein, J. S., & Kelly, J. B. (1980). Effects of divorce on the visiting father-child relationship.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12), 1534~1539.

ABSTRACT

A stud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hanges in resilience by language ability and bicultural acceptance using a latent growth model

Kim, Woojin* · Jung, Jeaah** · Shim, Taeun*** · Lee, Songyi****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elf-assessed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resilience. More specifically, we examined precisely how language proficiency, bicultural acceptance, and resilience changed over time, and further how language and bicultural acceptance have either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n resilience.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MAPS(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research data collected from 2012 to 2015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The results indicate that language proficiency increased with time while bicultural acceptance levels did not show consistent variation and increased and decreased over time. Language proficiency showed time-wise significant increase. The adolescents whose initial value of proficiency were high gradually increased over time while low proficiency increased relatively more steeply. In the case of bicultural acceptance, the result showed inconsistent changes over time, which implies difference in the environment have effect on the acceptance rather than age or individual developmental differences. Therefore, the two variables' effect on resilience was

*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 Dongguk University, Dharma College, Corresponding author, jeaah.jung@gmail.com

*** Dongguk University, Competency Development Center

**** Dongguk University, Dharma College

significant.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basic fundamental research material for developing curricular and policy that may help in resilience building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bicultural acceptance, resilience, latent growth model

투고일: 2017. 9. 10, 심사일: 2017. 11. 8, 심사완료일: 2017. 11. 15